

퇴계 사단칠정론의 본질 규명

- 통시론적 분석을 통해 -

김 상 현*

- I. 들어가는 말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칠정에 대한 이해
- IV. 사단과 칠정의 관계
- V.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18년간의 세월 속에서 수정되었는지, 아니면 초기의 입장이 만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퇴계 사단칠정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퇴계의 사단칠정론의 변화 과정을 다룬 선행연구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선행연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18년간 진행된 퇴계의 발언을 토대로 검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힐 것이다. 첫째, 사단칠정과 관련된 논의에는 두 가지 관점, 즉 ‘분개관-다름의 관점-리

* 경북대학교 철학과 강사 / mokgea@nate.com

기불상잡의 관점-가치론적 관점'과 '혼륜관-같은의 관점-리기불상리의 관점-생성론적 관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퇴계는 사단칠정론의 경우 '혼륜의 관점'보다 '분개의 관점', '생성론적 관점'보다 '가치론적 관점'을 더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을 밝힌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혼륜관의 입장에서 했던 퇴계의 발언을 근거로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셋째, '천리와 인욕을 대립적 구도'로 보고자 하는 퇴계의 기본 입장이 마음의 영역에서는 '도심과 인심의 대립 구도'로 드러나고, 감정의 영역에서는 '사단과 칠정의 대립 구도'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퇴계 사단칠정론의 본질 역시 '순수 선한 감정인 사단'과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인 칠정'을 질적으로 구분하고자 한데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 주제어

퇴계, 기대승, 사단, 칠정, 사단칠정론

I. 들어가는 말

퇴계 사단칠정론의 출발은 퇴계가 1553년 무렵 정지운의 <天命圖>를 보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퇴계는 정지운과 만나 <천명도>에 대해 논의한 후,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는 결과물을 내놓았다.¹⁾ 이후 1558년 기대승은 대과를 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때 정지운을 만나 이 글에 대해 몇 가지 비판을 제기한다.²⁾ 기대승의 비판을 전해 들은 퇴계는 1559년 1월 기존 자신의 주장을 “四端之發 純理 故無不善, 七情之發 兼氣 故有善惡.”으로 수정한다는 편지³⁾를 보낸다. 이 편지를 받은 기대승이 1559년 3월 <고봉 반론1>을 보냄으로써 8년간의 사단칠정논쟁이 시작된다.

퇴계는 1559년 10월 <퇴계 1서>⁴⁾에서 자신의 주장을 “四端理之發,

- 1) 1553년 퇴계는 <천명도>의 작자가 정지운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와 만나서 사단칠정론에 대해 논의한다. 그 후 정지운은 퇴계의 견해를 수용하여 자신의 <천명도>와 <천명도설>을 수정한다. 이때 수정된 <천명도>를 일반적으로 <천명구도>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천명구도>에 수록된 위 발언은 퇴계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퇴계는 1553년 겨울에 <천명도설후서>와 <천명도설>을 작성한다. <천명도설>의 경우 거듭된 수정을 거쳐 1555년 고향에 내려와 완성한다. 『退溪先生文集』 卷41, <천명도설후서>와 『퇴계선생속집』 卷8, <천명도설> 참조. 그리고 ‘천명도’ 판본과 관련된 논의는 김상현, 「‘천명도’와 ‘천명도설’의 판본문제에 대한 재검토」, 『대동철학』 86, 대동철학회, 2019, 참고 바람.)
- 2) 당시 기대승이 했던 비판의 전모가 무엇지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로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기대승이 1559년 3월에 퇴계에게 보낸 편지(『四七理氣往復書』, <高峯上退溪四端七情說>, 이하 <고봉 반론1>)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기대승 비판의 요지는 ‘사단과 칠정은 질적으로 다른 감정이 아니다. 모든 감정은 리와 기의 결합으로 인해 생성되기 때문에 리와 기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기대승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560년 8월의 편지는 <고봉 반론2>, 1561년 1월의 편지는 <고봉 반론3>, 1566년 7월의 편지는 각각 <사단칠정후서>와 <사단칠정총론>으로 표기한다.
- 3) 『退溪先生文集』 卷16, <與奇明彥 大升己未>.
- 4) 『退溪先生文集』 卷16에 수록된 <答奇明彥 論四端七情第一書>를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 편지를 <퇴계 1서>, 1560년 11월의 편지 <答奇明彥 論四端七情第二書>는 <퇴계 2서>, 1562년 10월의 편지<答奇明彥 論四端七情第三書>는 <퇴계 3서>, 1566

七情氣之發.”로 한 차례 더 수정을 한 후, 1560년 11월 <퇴계 2서>에서 다시 “四則理發而氣隨，七則氣發而理乘.”으로 수정한다. 사실 퇴계는 <고봉 반론1>을 받은 직후, 기대승이 자신과 다른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퇴계 1서>에서 퇴계는 기대승에게 사단칠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확인해보라고 한다. 그럼에도 기대승이 계속해서 자신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자, 퇴계는 논쟁이 겹돌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세세하게 반론을 하는 대신 몇 단락 짧게 비평하는 편지 <퇴계 3서>를 작성했음에도 결국 기대승에게 보내지 않고, 대신 논쟁을 그만두자는 편지를 보낸다. 이후 퇴계로부터 더 이상 사단칠정 관련 편지가 오지 않자, 기대승은 1566년 7월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단칠정논쟁을 정리하자는 의도에서 <사단칠정후설>과 <사단칠정총론>을 보냈고, 여기에 대해 퇴계가 1566년 10월 <퇴계 4서>와 11월 <퇴계 5서>를 보내면서 8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단칠정논쟁은 마무리된다.

기대승과의 사단칠정논쟁은 마무리되었지만, 퇴계는 여전히 사단칠정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1566년 12월에는 제자 이덕홍과 사단칠정 관련 논의를 하였고,⁵⁾ 1568년 12월에는 <심통성정도>를 작성하여 사단칠정 논의를 펼쳤으며, 1569년 3월에는 선조에게 <심통성정도>에 대해 강의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제자 이평숙과 인심도심과 사단칠정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고,⁶⁾ 세상을 뜨기 불과 2달 전인 1570년 10월에도 제자 이양중과 사단의 선악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⁷⁾

이렇듯이 퇴계는 53세 무렵 <천명구도>와 <천명도설>을 통해 사단과 칠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후, 세상을 뜰 때까지 약 18년간 수

년 10월의 편지 <답奇明彦>은 <퇴계 4서>, 1566년 11월의 편지 <重答奇明彦>은 <퇴계 5서>로 표기한다.

5) 『退溪先生文集』 卷36, <答李宏仲問目>.

6) 『退溪先生文集』 卷37, <答李平叔>.

7) 『退溪先生文集』 卷39, <答李公浩(養中庚午)>.

많은 논쟁과 논의를 통해 자신의 사단칠정론을 전개하였다. 그렇다면 18년 동안 퇴계의 사단칠정론은 어떻게 전개되었던 것일까? 수많은 논의와 논쟁을 통해 결실을 맺은 퇴계 사단칠정론의 본질은 무엇일까? 혹시 초기에 정립된 이론이 여러 학자와의 논쟁을 거치면서 수정되고 변화된 것은 아닐까? 만약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폭으로 변화된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이론의 본질적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아니면 이론의 본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이론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일까?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퇴계 사단칠정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퇴계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많다. 상당수의 논문은 퇴계 사단칠정론의 이론적 의미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기대승, 이이 등 다양한 학자들의 사단칠정론과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물론 최근에는 퇴계 사단칠정론을 심리적 차원, 감정론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퇴계의 사단칠정론의 변화 과정에 주목한 논문은 그렇게 많지 않다.⁸⁾ 본 논문은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초기와 달리 후기에 와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선행연구의 타당성 여부를 18년간에 걸쳐 진행된 퇴계의 발언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변화되었는지, 만약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변화의 양적·질적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함으로써 퇴계 사단칠정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힐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퇴계의 사단칠정론 변화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논문은 생각

8) 정원재는 퇴계 사단칠정론의 변화과정을 다루고 있는 최근 연구자로 안영상과 이상호를 들고 있다. 정원재, 「이황의 7정 이해」,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2015, 각주 6번 참고.

보다 많지 않다. 여기서는 안영상, 이상호, 정원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안영상은 퇴계의 만년 정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그것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규명하였다.⁹⁾ 여기서 안영상은 ‘퇴계가 논쟁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대승의 설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퇴계 사후에 퇴계학과 내부에서 많은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¹⁰⁾ 안영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봉은 이 논쟁이 끝날 무렵 ‘四端 理之發’은 확충해야 하고 ‘七情 氣之發’은 中節해야한다고 하여 퇴계의 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리지발’은 사단과 중절한 칠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퇴계는 사단과 중절한 칠정을 다 같이 ‘리지발’로 볼 수 있다는 고봉의 논리를 승인하는 것 같은 대답을 하였는데, 이것은 사단과 칠정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했던 기존의 그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이것이 후대학자들(에게)은 많은 영향을 끼친 퇴계 만년정론이다.¹¹⁾

여기서 안영상은 퇴계가 중절한 칠정과 사단을 모두 ‘리지발’로 볼 수 있다는 기대승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단과 중절한 칠정을 모두 ‘리지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결국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과 연결되고, 더 나아가 ‘사단은 칠정에 포함된다’는 입장까지도 연결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분명 사단과 칠정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했던 퇴계의 초기 입장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퇴계가 기대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퇴계의 사단칠정론은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9) 안영상, 「퇴계 만년정론을 중심으로 본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논쟁」, 『국학연구』 15, 한국국학진흥원, 2009, 370쪽.

10) 갈암 이현일과 극재 신익항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또 성호 이익과 제자 신후담이 논쟁하여 성호학파가 분열되었으며, 이후 이진상을 중심으로 한주학과와 서산 김홍락을 중심으로 한 서산학과 역시 이해를 달리했다. 안영상, 앞의 논문, 370쪽 참조.

11) 안영상, 앞의 논문, 370쪽.

안영상은 퇴계가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려는 의도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분명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한발 물러선다. 그러면서 주장을 다소 약화시켜서 “대신에 퇴계는 이런 고봉의 논리와 자신의 기존의 논리를 공존시켜려는 태도를 보인다.”¹²⁾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안영상이 어떠한 근거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 근거는 ‘중절한 칠정과 사단이 같지 않느냐?’는 고봉의 질문에 대해 퇴계가 <퇴계 3서>에서 “비록 기에서 말했지만 타고 있는 리가 주가 되기 때문에 선함에 있어서는 같다.”¹³⁾라고 한 답변에서 찾는다. 안영상은 퇴계가 중절한 칠정과 사단을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¹⁴⁾

두 번째 근거는 퇴계가 <답이굉중문목>에서 했던 “만약에 渾淪으로 말하면 未發之中은 太本이 되고, 칠정은 大用이 되니 사단은 그 가운데에 있다.”라는 답변이다. 안영상은 이 구절을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용』의 중화론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 이 경우 칠정은 사단과 다른 영역이 아니라 사단을 포함한다.”라고 해석한 후, 퇴계는 칠정을 사단과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단을 포함하는 감정으로 보았다고 주장한다.¹⁵⁾

세 번째 근거는 <심통성정도>의 “<중도>는 기품 가운데서 본연지성이 기품에 섞여 있지 않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자사가 말한 天命之性, 맹자의 이른바 性善之性, 정자가 말한 性即理의 性, 장횡거가 말한 天地之性이 이것이다. …”¹⁶⁾라는 구절에서 찾는다. 안영상은 이 구절에 대해 “이 의미를 좀 더 분석해보면 本然之性은 바로 리이고 본연지성의 발현이란 리지발의 뜻이다. 그리고 회로애락 中節의 정은 칠정의 중절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결국 칠정 중절의 정은 사단의 정과 같게 된다.”라

12) 안영상, 앞의 논문, 393쪽.

13) <퇴계 3서>, “雖發於氣, 而理乘之爲主, 故其善同也.”

14) 안영상, 앞의 논문, 388쪽 참고.

15) 안영상, 앞의 논문, 393~394쪽.

16) 『退溪先生文集』卷7, <進聖學十圖筭 并圖>, “其中圖者, 就氣稟中, 指出本然之性, 不雜乎氣稟而爲言. 子思所謂天命之性, 孟子所謂性善之說.”

고 해석한다.¹⁷⁾

결국 안영상은 <퇴계 3서>, <답이굉중문목>, <성학십도> 등을 근거로 퇴계가 초기에는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구분해 보았지만, 논쟁을 거치면서 고봉의 견해를 받아들여 사단을 증절한 칠정과 같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결국 ‘사단과 칠정을 질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지 않는 입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퇴계의 만년정론이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상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¹⁸⁾ 이상호는 칠정에 대한 입장의 변화로 인해 사단과 칠정의 관계 설정이 변화되었고, 여기에 더해 理發에 국한해 사단을 설명했던 시각이 理氣互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상호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황은 사단칠정 논쟁 초기 자신만의 철학적 특징을 결정 짓는다. 선과 악을 대비시켜 바라보려 하면서, 사단과 칠정을 待對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리와 기의 관계 역시 불상잡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더불어 사단의 소중래를 리에 두기 위해 리의 적극적인 주재나 능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理發’을 제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기대승의 반박에 봉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약간 수정된 입장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황의 후기 입장이다. 여기에서 이황은 칠정을 리와 기의 합으로 긍정하고, 그것이 가진 본래적 속성 역시 선함으로 인정함으로써, 사단과 칠정을 단순한 대대관계로 설정하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리기의 관계 역시 불상리를 전제한 상태에서 불상잡을 강조하게 되고, 리발은 기에 의지해서 발하는 ‘리기호발’로 그 의미가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서 기대승에 대한 비판도 불상리와 불상잡을 고르게 보지 않았다거나, 리발과 기발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입장으로 옮겨가게 된다.¹⁹⁾

이 발언을 보면, 이상호는 우선 퇴계 사단칠정의 초기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는 사단과 칠정을 선악의 측면에서 待對관계로

17) 안영상, 앞의 논문, 395쪽.

18) 이상호, 「논쟁 전·후기 退溪 四七論 변이 양상과 退溪學派 四七論 전개」, 『퇴계학논집』 8,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19) 이상호, 앞의 논문, 1~2쪽과 15~16쪽.

바라보았고, 둘째는 리와 기의 관계를 理氣不相雜 중심으로 보았으며, 셋째는 사단의 所從來를 리에 두고 리의 적극적인 主宰나 능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理發’을 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호는 이와 같은 초기 입장이 후기에 와서 어떻게 수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첫째는 칠정을 리기의 합으로 인정한 후, 칠정 역시 본래 선한 감정으로 보았고, 둘째는 선악의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待對적 관계로 보는 입장을 벗어나 理氣不相離를 전제한 상태에서 理氣不相雜을 강조한 것으로 보았으며, 셋째는 ‘理發’은 리의 獨發이 아니라 기에 의지해서 말하는 ‘理氣互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이상호는 퇴계의 초기 입장과 후기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기 입장과 후기 입장의 차이로 인해 퇴계의 후학들의 사칠론이 뚜렷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원재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²⁰⁾ 정원재는 퇴계의 칠정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퇴계의 사단칠정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는 퇴계의 칠정관 변화 과정에 대해 “그 주요한 경로와 고비는 <천명도설>과 <퇴계 1서>→<퇴계 2서>와 <퇴계 3서>→<퇴계 4서>와 <심통성정도설> 순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²¹⁾라고 하였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천명도설>과 <퇴계 1서>에서는 퇴계가 『예기』 <예운>의 칠정관을 수용했지만, <퇴계 2서>부터는 점진적으로 『중용』의 칠정관을 받아들여 기존의 칠정관을 수정하였으며, <심통성정도> 이후로는 완전히 『중용』의 칠정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정원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명도설>에서 7정은 형기에 기원을 둔 것으로 인심과 동일시되면서 ‘사악함으로 흐르기 쉬운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예운>의 7정관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분적으로는 <퇴계 2서>부터, 더 명확하게는 <심통성정도설> 이후부터 7정은 본성에 기원을 둔 것으로 여겨지면서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중용』의 구조 안에서 7정을 설명하면서 생겨나는 변화이다.²²⁾

20) 정원재, 앞의 논문.

21) 정원재, 앞의 논문, 57쪽.

22) 정원재, 앞의 논문, 6쪽.

정원재는 퇴계의 칠정관을 근거로 사단칠정론을 조명하고 있다. <천명도설>과 <퇴계 1서>에서는 <예운>을 근거로 칠정을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칠정은 사단과 다른 기원을 갖는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분류되었고, 이후 <퇴계 2서>을 거치면서 점차 칠정을 『중용』의 관점에서 본래 선한 감정으로 규정하면서도 여전히 ‘칠정의 所從來(즉, 기원)는 기인 반면 사단의 소종래는 리’라고 하여 칠정을 사단과 구분하고자 노력하는 과도기를 거쳤으며, <퇴계 4서>로 오면서부터는 기원을 근거로 칠정을 사단과 다른 것으로 상정하려는 노력까지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²³⁾

이상으로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후기에 와서 수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세 학자의 연구를 검토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세 학자의 공통적인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퇴계의 칠정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칠정관의 변화로 인해 ‘사단과 칠정의 관계 설정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 후,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퇴계 사단칠정론의 본질적 변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III. 칠정에 대한 이해

사단칠정논쟁은 퇴계가 <천명구도>에서 “사단은 리에서 발현된 것이고, 칠정은 기에서 발현된 것이다.”[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고 말한 것에 대해 기대승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사단칠정논쟁은 사단과 칠정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리와 기라는 우주론적 개념을 통해 정당화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단과 칠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토대로 두 감정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된 리와 기의 역

23) 정원재, 앞의 논문, 48쪽 참고.

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사단이 ‘순수 선한 도덕적 감정’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칠정은 다르다. 사단의 출처가 『맹자』라는 단일한 텍스트인 것에 비해, 칠정은 그 출처가 『예기』 <예운>과 『중용』 두 곳인데, 두 곳에서 사용된 칠정의 의미가 다르다.²⁴⁾ 사단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칠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칠정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칠정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칠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단과 칠정의 관계 및 두 감정과 리기의 연결 고리까지 달라진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예운> 편에서 칠정은 열 가지 올바른 도덕규범인 十義와 대비되는 ‘통제하고 절제해야 할 감정’[治人七情]으로 묘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운>의 칠정은 ‘다스림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다스림과 통제의 대상’이라는 의미에는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易流於邪惡]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중용』의 칠정은 본성이 발현된 감정 전체를 의미한다. 하늘의 명령은 인간이 탄생할 때 본성으로 부여되는데[天命之謂性], 그 본성이 외부로 발현된 것이 바로 칠정이다[性發爲情]. 그러므로 『중용』의 칠정은 ‘본래 선한 감정’으로 이해된다. 본래 선한 감정이긴 하지만 성이 외부로 발현될 때 中節 여부에 따라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으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해, 하늘이 명령한 본성이 현실 세계 속에 그대로 발현되면, 즉 中節하면 선한 감정이 되지만 하늘이 명령한 본성이 사적 욕망의 방해로 인해 그대로 발현되지 못하면, 즉 不中節하면 악한 감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의 칠정관은 본성에서 감정으로 발현되는 측면에서 바라본 관점, 즉 감정의 생성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칠정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칠정을 『중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말은 칠정을 감정의 생성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앞서 살펴본

24) 엄밀하게 말하면, 칠정의 출처는 『예기』 <예운>이다. 하지만 후대의 학자들이 『중용』의 회로애락 4정 역시 칠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칠정의 출처를 두 텍스트라고 한 것이다.

<예운>의 칠정관은 칠정을 선한 十義와 대립되는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감정을 선과 악이라는 가치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예운>의 칠정관과 『중용』의 칠정관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세 연구자는 모두 퇴계의 칠정관이 후기로 가면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퇴계의 칠정관은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된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퇴계의 사단칠정론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던 것일까? 아래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²⁵⁾ 퇴계가 했던 칠정과 관련된 발언을 검토하면서 위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1553년 가을 무렵 퇴계는 처음으로 사단과 칠정에 관한 발언을 한다. 그 발언은 정지운과 함께 작성한 <천명구도>에 수록된 “四端發於理，七情發於氣。”이다. 퇴계는 무엇 때문에 <천명구도>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천명구도>의 해설서인 <天命圖說>²⁶⁾을 살펴보자.

‘오상’은 순수 선하고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된 사단 역시 선하지 않음이 없다. ‘기질’은 본연의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된 칠정은 악으로 흐르기 쉽다.²⁷⁾

이 발언을 통해 우리는 퇴계의 초기 칠정관을 확인할 수 있다. ‘오상’(즉, 仁義禮智信)은 순수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된 ‘사단’도 순수 선하며, ‘기질’(즉, 形氣)은 순수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된 ‘칠정’은 악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퇴계는 <천명도

25) 본 논문에서 인용한 자료의 연대 고증은 퇴계학연구원이 2002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진흥사업의 지원을 받아 편찬한 『정본 퇴계전서』에 근거한 것이다.

26) 월천 조목에 따르면, 현재 『퇴계집』에 수록된 <천명도설>은 최초 1553년에 작성되었지만 이후 수정되어 1555년에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

27) 『퇴계선생속집』 卷8, <천명도설>, “五常者，純善而無惡，故其所發之四端，亦無有不善。所謂氣質者，非本然之性，故其所發之七情，易流於邪惡。” 이 구절은 1560년 기대승이 정지운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온다.

설>에서 감정을 ‘오상-사단-순수 선함’의 계열과 ‘기질-칠정-악이 되기 쉬움’이라는 계열로 二元化하고 있다. 퇴계는 감정의 이원화를 통해 사단과 칠정의 異質性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퇴계의 초기 칠정관은 <예운>의 칠정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²⁸⁾

1559년 1월에 퇴계는 자신의 기존 견해를 “사단의 발현은 순수 리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발현은 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四端之發，純理故無不善，七情之發，兼氣故有善惡.]로 수정한다. 기대승이 <천명구도>의 “四端發於理，七情發於氣”라는 표현을 “리와 기를 갈라서 두 존재로 삼은 것으로 칠정은 성에서 나오지 않고 사단은 기를 타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²⁹⁾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칠정은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감정’으로 변화된다. 이 변화의 의미는 ‘發於氣’에서 ‘兼氣’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겸기’라는 표현은 곧 리와 기의 공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감정’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이후 퇴계는 1559년 10월 <퇴계 1서>에서 다시 기존 주장을 “四端理之發，七情氣之發.”로 수정하면서, “칠정은 아직 선과 악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잘 살피지 않으면 마음이 바름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발현된 후 中節한 다음에야 ‘조화롭다’[和]고 하는 것이다.”³⁰⁾라고 한다. 퇴계는 <퇴계 1서>에서 칠정의 의미를 이전의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감정’에서 ‘선악 미정의 감정’으로 수정한 것이다. 퇴계는 <퇴계 1서>에서 확실히 『중용』의 칠정관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현된 칠정은 증절 여부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

28) ‘<예운>의 칠정관을 따랐다’ 혹은 ‘『중용』의 칠정관을 따랐다’라는 표현은 퇴계가 의식적으로 그와 같은 칠정관을 수용하고 따랐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퇴계는 한 번도 ‘<예운>의 칠정관에 따르면’이나 ‘『중용』의 칠정관에 따르면’ 등과 같은 표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칠정에 대한 퇴계의 해석을 두고 편의상 그렇게 분류하여 표현한 것일 뿐이다.

29) 『兩先生四七理氣往復書』, <高峯上退溪四端七情說>(1559년 3월)

30) <퇴계 1서>, “七情，善惡未定也，故一有之而不能察，則心不得其正。而必發而中節，然後乃謂之和。”

되기 때문에 증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악 미정의 감정으로 볼 수 있다.

퇴계는 1560년 11월 <퇴계 1서>를 수정하면서 “칠정도 본래 선한 감정이지만 악으로 흐르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발현하여 절도에 맞아야만 조화롭다고 한다. 하지만 한 번 이루었다 하더라도 잘 살피지 못하면 마음은 이미 그 바름을 잃어버린다.”³¹⁾라고 말한다. <퇴계 1서>의 ‘선악 미정의 감정’이 <퇴계 1서 수정본>에 와서는 ‘본래 선하지만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으로 수정된 것이다. 새롭게 수정된 표현에서 주목할 부분은 ‘본래 선하다’는 것이다. 칠정은 ‘선악 미정의 감정’이며,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이긴 하지만, ‘천명의 성’에서 근원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선한 감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 1서 수정본>의 칠정관을 보면, 퇴계가 확실히 『중용』의 칠정관을 수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퇴계 2서>에서 칠정을 ‘氣發而理乘之’라고 하여 칠정을 여전히 ‘주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1562년 10월 <퇴계 3서>에서는 칠정 자체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중절한 칠정’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기대승이 <고봉 반론3>에서 “중절한 칠정은 ‘發於理’인가, ‘發於氣’인가? 그리고 중절한 七情의 좋은 四端의 善과 같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³²⁾ 여기에 대해 퇴계는 “[중절한 칠정은] 비록 ‘발어기’이지만 리가 타서 주재하기 때문에 그 선함은 동일하다.”³³⁾라고 답한다. ‘중절한 칠정’은 기로부터 기원한 것이긴 하지만 리가 타서 주재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선함에 있어서는 사단과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이다. 앞서 <퇴계 1서 수정본>에서 칠정을 ‘본래 선한 감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중절한 칠정은 자연스럽게 선한 감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선

31) <퇴계 1서 수정본>, “七情本善, 而易流於惡. 故其發而中節者, 乃謂之和. 一有之而不能察, 則心已不得其正矣.” <퇴계 2서>, “夫四者之所以易爲心病者, 正緣氣之所發雖本善, 而易流於惡故然耳.”

32) <퇴계 3서>, “敢問喜怒哀樂之發而中節者, 爲發於理耶, 爲發於氣耶. 而發而中節, 無往不善之善, 與四端之善, 同歟異歟.”

33) <퇴계 3서>, “雖發於氣, 而理乘之爲主, 故其善同也.”

한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단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중절 한 칠정과 사단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며, 여기서는 우선 퇴계가 <퇴계 3서>에서 칠정을 ‘본래 선한 감정’이기는 하지만 리기론적 관점에서는 ‘발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 대해 밝힌다. 이렇게 본다면 <퇴계 3서>의 칠정관은 <퇴계 1서 수정본>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퇴계는 1566년 7월에 기대승으로부터 사단칠정논쟁을 마무리하자는 편지 <사단칠정후설>과 <사단칠정총론>을 받는데, 이 편지에 대한 퇴계의 답장은 2차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퇴계 4서>에서는 “성현의 칠정, 즉 중절한 칠정과 사단이 다르지 않다는 기대승의 견해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³⁴⁾는 언급을 하고, <퇴계 5서>에서는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에 나누어 소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기대승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발언을 한다.³⁵⁾ 이렇게 하여 8년에 걸친 사단칠정논쟁은 마무리 된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퇴계는 칠정을 ‘본래 선하기는 하지만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으로 보아 사단과 구분했으며, 리기 개념과 관련해서는 主氣적 관점(기발-1서, 기발이리승-2서, 발어기-3서)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568년 <심통성정도> 중 하도에서 “칠정은 ‘기가 발함에 리가 그것을 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선하지 않음 없다. 하지만 기가 발함에 절도에 맞지 않고 리를 소멸시켜 버린다면 악이 된다.”³⁶⁾라고 하여 <퇴계 1서 수정본>의 입장을 유지한다. 본래 선한 감정이라는 하지만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가 발함에 절도에 맞지 않고 리를 소멸시키는 경우’ 다시 말해 ‘리가 주재하지 못하게 되면’ 칠정이 부중절하게 되어 악한 감정이 된다는 말을 덧붙였을 뿐이다. 1569년 이평숙에게 보낸

34) <퇴계 4서>, “所論鄙說中聖賢之喜怒哀樂及各有所從來等說, 果似有未安, 敢不三復致思於其間乎.”

35) <퇴계 5서>, “顧高明因此而遂謂四七必不可分屬理氣, 所謂未異也.”

36) 『退溪先生文集』卷7, <進聖學十圖筭 并圖>,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而滅其理則放而爲惡也.”

편지에서는 “칠정은 비록 ‘發於氣’에 해당되지만 실상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명칭이지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다.”³⁷⁾라고 한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명칭이라는 말은 칠정이 본래 선한 감정이라는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1570년 10월에 퇴계는 ‘기발의 칠정은 기로 인해 순수 선한 감정인 사단과 다르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³⁸⁾ 그러므로 1560년 11월 <퇴계 1서 수정본> 이래 유지되어 온 ‘칠정은 본래 선하지만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이다’라는 것과 칠정을 주기(主氣)적 관점에서 바라본 입장은 끝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1553년 <천명(구)도>에서부터 1570년 <답이공호>에 이르기까지 칠정에 대한 퇴계의 발언을 살펴보았다.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發於氣’(<천명도설>, <천명구도>), ‘선악이 공존하는 감정’-‘兼氣’(<與奇明彥>), ‘선악 미정의 감정’-‘氣之發’(<퇴계 1서>), ‘본래 선하지만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氣發而理乘’(<퇴계 1서 수정본>, <퇴계 2서>), ‘중절한 칠정은 선함에 있어서는 사단과 동일한 감정’-‘發於氣’(<퇴계 3서>), ‘본래 선하지만 악이 될 수도 있는 감정’-‘氣發而理乘’(<심통성정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감정’-‘發於氣’(<답이평숙>) 등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천명도설>의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에서 <퇴계 1서 수정본>의 ‘본래 선한 감정’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이라는 표현에 ‘절제하고 통제해야 할 감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본래 선한 감정’이라는 표현에는 그것의 근원에 리(本성)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칠정도 그 근원이 ‘천명의 성’이기 때문에 ‘본래 선하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칠정을 바라보는 퇴계의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37) 『退溪先生文集』卷37, <答李叔叔>, “七情, 則雖云發於氣, 然實是公然平立之名, 非落在一邊底.”

38) 퇴계는 1570년 10월 이양중에게 보낸 편지 <答李公浩(養中庚午)>에서 “湛一함이 기의 본 모습이니 이때에는 아직 악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기가 어찌 순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와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퇴계가 초기에 칠정을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으로 본 것이 분명하고, <퇴계 1서 수정본> 이후에는 칠정을 ‘본래 선한 감정’으로 본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퇴계는 <퇴계 1서 수정본> 이후에도 여전히 칠정을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으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七情을 氣와 연결해 표현하는 부분을 보면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發於氣’, ‘兼氣’ ‘氣之發’, ‘氣發而理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主氣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칠정을 바라보는 퇴계의 시선이 ‘본래 선한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퇴계 1서 수정본>에서 칠정을 본래 선한 감정으로 규정된 이후에도 퇴계가 계속해서 칠정을 순수 선한 도덕적 감정인 사단과 구분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계가 후기로 가면서 <예운>의 칠정관을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중용』의 칠정관만 따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초기에는 <예운>의 칠정관에 초점을 맞추어 사단칠정론을 전개했다고 한다면 후기로 가면서는 <예운>의 칠정관에 더해 『중용』의 칠정관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1569년 제자 이함형에게 했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퇴계는 1566년 이덕홍에게 ‘인심은 칠정이고, 도심은 사단이다’라고 말해 놓고 1569년 이함형에게는 ‘인심과 도심을 칠정과 사단에 배정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었다.³⁹⁾ 형식적으로 보면 두 발언은 모순적이다. 퇴계는 무엇 때문에 앞뒤의 말을 다르게 한 것일까? 견해가 바뀐 것일까? 퇴계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심을 칠정으로 보고 도심을 사단으로 보는 것은 주자와 허동양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인심과 도심을 칠정과 사단으로 보는 것은 안 될 것이 없다.

39) 물론 인심도심은 마음에 해당되고, 사단칠정은 감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자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퇴계는 인정한다. 그럼에도 퇴계는 인심도심과 사단칠정을 연관지어 설명한다.

내가 이전에 이덕홍에 답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명칭과 실제에 나아가 세밀하게 논한다면, 인심은 도심과 대립적 관점에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신체의 사적인 것에 속한 것이다. 이미 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도심으로부터 명령을 들어야 하나가 될 수 있지, 도심과 더불어 혼란하여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칠정은 비록 ‘발어기’에 해당되지만 실상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명칭이지 한쪽에 치우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악기>, 『중용』, <호학론> 등에서 사단을 모두 그 속에 포함시켜 혼란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⁴⁰⁾

주자 및 허동양의 설에 따르면 인심과 도심을 칠정과 사단에 짝 지을 수 있지만, 명칭과 실제에 따라 세밀히 논하면, 달리 말해 渾淪觀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퇴계는 기본적으로 인심과 도심을 대립적인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인심은 ‘形氣-私-危’와 연결시키고, 도심은 ‘性命-公-微’와 연결시킨다.⁴¹⁾ 사단 역시 선한 감정으로 본다. 그러므로 ‘인심도심을 칠정사단에 짝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의 핵심은 ‘인심을 칠정과 짝 지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인심과 칠정을 짝 지을 수 있다’는 말은 칠정을 인심처럼 사적인 감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인심과 칠정을 짝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칠정을 공적인 감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퇴계는 이덕홍에게는 ‘인심과 칠정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이양중에게는 ‘인심과 칠정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두 주장이 양립가능하려면, 인심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칠정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서 퇴계는 칠정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칠정을 위태로운 감정, 즉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으로 보는 <예운>의 칠정관에 따라 칠정을 해석하였

40) 『退溪先生文集』 卷37, <答李平叔>, “人心爲七情, 道心爲四端, 以中庸序朱子說及許東陽說之類觀之, 二者之爲七情四端, 固無不可. 滉前日答李宏仲云云者此也. 但若各就其名實而細論之, 則人心之名, 已與道心相對而立, 乃屬自家體段上私有底. 蓋既曰私有, 則已落在一邊了, 但可聽命於道心而爲一, 不得與道心渾淪爲一而稱之. 至如七情, 則雖云發於氣, 然實是公然平立之名, 非落在一邊底. 故如樂記中庸好學論中, 皆包四端在其中, 渾淪而爲說.”

41) 『退溪先生文集』 卷39, <答洪胖>(2), “分而言之, 人心固生於形氣, 道心固原於性命.

고, 다른 하나는 ‘본래 선한 감정’으로 보는 『중용』의 칠정관에 따라 칠정을 해석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퇴계는 칠정에 대한 두 관점의 존재를 인정한다. 따라서 퇴계의 칠정관이 <예운>의 칠정관에서 『중용』의 칠정관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예운>의 칠정관에 초점을 맞추어 사단칠정론을 전개하였지만, 후기로 가면서 『중용』의 칠정관도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칠정관의 변화를 곧바로 사단칠정론의 변화로 읽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퇴계가 칠정과 사단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단칠정론의 핵심이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칠정의 의미가 다소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가 사단칠정론의 본질적 측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칠정관의 변화를 근거로 사단칠정론이 변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칠정과 사단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칠정의 의미변화가 사단칠정론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IV. 사단과 칠정의 관계

앞서 살펴보았던 세 연구자의 또 다른 공통된 결론은 바로 퇴계가 초기에는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구분해 보았지만, 후기로 가면서 양자를 질적 측면에서 구분하지 않은 입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사단칠정론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퇴계가 사단과 칠정을 어떤 구도로 이해했는지에 대해 검토하면서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단칠정론에 대한 퇴계의 최초 발언은 <천명구도>(1555)의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이다. 퇴계가 <천명구도>에서 사단과 칠정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사단과 칠정을 선악의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는

감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퇴계는 무엇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대립적인 감정으로 보았던 것일까? 사단은 오상에 근거한 ‘순수 선한 감정’인 반면, 칠정은 육체(즉 氣質, 形氣)에서 근거한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사단과 칠정을 ‘선과 악이라는 가치론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윤리적 행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명구도>에 담긴 퇴계의 초기 입장은 ‘사단과 칠정은 질적으로 다른 감정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리기론적 차원에서 정당화한 것이 바로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는 표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표현이 ‘사단과 칠정은 질적으로 다른 감정이다’라는 주장과 충돌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표현이 아무리 크게 변화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단과 칠정은 질적으로 다른 감정이다’라는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근거로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변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퇴계는 1559년 1월 기대승에게 <천명구도>의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를 “사단의 발현은 순수 리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발현은 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한다.”[四端之發, 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 兼氣故有善惡.]로 수정한다는 편지를 보낸다.⁴²⁾ 퇴계가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이전 표현이 리와 기를 분리하여 두 존재로 삼았기 때문에 칠정은 성에서 근원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사단은 기를 타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⁴³⁾라는 기대승의 비판 때문이다. 퇴계는 이러한 이유에서 ‘發於理’를 ‘純理 無不善’으로 ‘發於氣’를 ‘兼氣 有善惡’으로 수정하였던 것이다.⁴⁴⁾ 여기서 핵심은 사단은 ‘순수 선한 감정’이라는 것이고, 칠정은 ‘선과 악이 혼재하는 감정’이라

42) 『退溪先生文集』 卷16, <與奇明彥(大升己未)>을 가리킨다.

43) 「고봉 반론1」, “理與氣判而爲兩物也。是七情不出於性, 而四端不乘於氣也。此語意之不能無病, 而後學之不能無疑也。”

44) <퇴계 1서>, “愚意亦恐其分別太甚, 或致爭端。故改下純善兼氣等語。” <퇴계1서> 원문에는 ‘순선’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맥락을 고려할 때 ‘순리’의 오기인 것으로 보아 ‘순리’로 번역하였다.

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이 순수 선한 감정인 것은 그 근원이 ‘純理’이기 때문이고, 칠정이 선악이 혼재하는 감정인 것은 그 근원이 ‘兼氣’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과 칠정에 대한 술어적 표현은 다소 수정되었지만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보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기대승의 사단칠정관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자. 기대승은 퇴계와 달리 처음부터 『중용』의 관점에서 칠정을 이해했다. 그런데 『중용』에서는 칠정을 未發과 已發의 차원, 즉 감정의 생성론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칠정이 未發일 때에는 본성이 온전히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주의 보편적 법칙에 그대로 적중[中]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선하다. 하지만 칠정이 已發하면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으로 나누어진다. 물론 발현된 칠정의 선악 여부는 감정의 中節 여부에 달려 있다. 발현된 칠정이 도덕 법칙에 부합하면 [즉, 中節하면] 선한 감정이 되고, 부합하지 못하면 [즉, 不中節하면] 악한 감정이 된다. 그러므로 『중용』에 따르면 칠정은 감정의 총칭이 되고, 중절 여부에 따라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사단은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감정이기 때문에 개념상 선한 감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대승은 처음부터 ‘중절된 칠정’과 ‘사단’을 동일한 선한 감정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승에게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는 감정이지 칠정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대립적인 감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중절된 칠정과 부중절된 칠정이 서로 대립하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감정을 생성론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감정은 氣가 理인 본성을 외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리와 기의 합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생성론적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모두 리와 기의 결합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대승이 보기에 <천명구도>의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는 표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다. 첫째는 중절된 칠정과 사단은 선한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고, 칠정이 감정의 총칭인데 칠정과

사단을 서로 분리하여 대립적인 감정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감정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리와 기가 절대 분리될 수 없는데, 리와 기를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사실 생성론적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바라본다면 이와 같은 비판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퇴계는 1559년 1월 기대승의 두 번째의 비판만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리기분리적 표현을 완화하기 위해 ‘發於理’를 ‘純理’로, ‘發於氣’를 ‘兼氣’로 수정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사단과 칠정을 ‘純理-無不善’와 ‘兼氣-有善惡’으로 구분하여 양자를 선악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구분했던 초기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퇴계 1서>에서도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고 하여 그대로 이어진다. 물론 ‘發於理’에서 ‘理之發’로, ‘發於氣’에서 ‘氣之發’로 표현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구분해 보고자 했던 퇴계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표현상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⁴⁵⁾ 여기서 퇴계는 ‘理氣不相離’의 관점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말하고자 하는 측면에 따라서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퇴계는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나 “四端之發 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 兼氣故有善惡.” 등과 같은 주장은 그 표현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이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구분하고자 했던 성현들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사단과 칠정을 그 所從來에 따라 리와 기로

45) 퇴계와 기대승 역시 두 표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퇴계가 <퇴계 2서>에서 ‘四端理發而氣隨, 七情氣發而理乘’이라고 표현한 이후에도, 기대승은 여전히 “회로애락이 발현되어 절도에 맞는 것은[中節] ‘發於理’입니까, ‘發於氣’입니까?”, “도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만 대강을 말하여 ‘是理之發, 是氣之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천지의 성과 기질의 성을 나누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단칠정후설>에서 “‘사단’은 ‘理之發’이 확실합니다. … ‘칠정’은 ‘氣之發’이라는 사실 또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理之發’이라는 것은 오직 리만 가리켜 말한 것이며, ‘氣之發’이라는 것은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라고 한다. 즉 기대승은 퇴계가 <퇴계 2서>에서 사용했던 “理發而氣隨, 氣發而理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퇴계 역시 기대승의 이와 같은 발언을 문제 삼지 않는다.

구분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기로서 성을 논하는 폐단에 들어가고 인욕을 천리로 오인하는 잘못에 빠지게 된다.”⁴⁶⁾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퇴계 1서>에서도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구분하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퇴계는 1559년 3월 <고봉 반론1>을 받고서 비로소 기대승의 논지를 분명하게 파악한다. 기대승이 자신과 다른 생성론적 관점(즉, 理氣不相離의 관점, 渾淪觀, 같음의 관점)⁴⁷⁾에서 자신의 사단칠정론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리의 학문이란 지극히 정밀하고 미묘한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을 넓게 쓰고 시각을 크게 하여 절대로 앞서서 한 가지 이론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기분으로 속 깊은 뜻을 차근차근 살펴야 합니다. ‘같음’[同] 속에서도 ‘다름’[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다름’ 속에서도 ‘같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누어 둘로 여기더라도 아직 둘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뜻을 헤치지 않아야 하며, 합하여 하나로 여기더라도 서로 섞이지 않는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치우침이 없이 두루 알게 되는 것입니다.⁴⁸⁾

46) <퇴계 1서>, “駸駸然入於以氣論性之蔽, 而墮於認人欲作天理之患矣, 奚可哉.”

47) 기대승이 사단과 칠정을 해석할 때 취했던 관점을 논자는 ‘생성론적 관점, 리기불상리의 관점, 혼륜의 관점, 같음의 관점’ 등으로 부른다. 생성론적 관점은 감정의 발생 과정에 주목해서 사단과 칠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한다. 감정의 발생은 기가 리인 본성을 외부로 드러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와 기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理氣不相離의 관점’이기도 하다. 감정의 생성과정에 주목해 보면 발생한 감정은 중절 여부에 따라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중절된 감정은 선한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단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칠정과 사단을 유사한 감정으로 섞어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칠정과 사단을 동질적인 감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퇴계가 취했던 관점은 ‘가치론적 관점, 理氣不相雜의 관점, 分開의 관점, 다름의 관점’ 등으로 부를 수 있다. 퇴계는 사단과 칠정을 선악의 측면, 즉 가치론적 관점에서 양자를 구분해 보고자 했다. 따라서 사단의 근원을 리에 연결시키고, 칠정의 근원을 기(육체, 形氣)에 연결시킨 후, 리와 기를 서로 섞어 보아서는 안 된다(理氣不相雜)고 역설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의 사단칠정론은 사단과 칠정, 리와 기를 나누어 보고자(분개관) 했으며, 사단과 칠정을 선악의 측면에서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던 것이다.

48) <퇴계 1서>, “義理之學, 精微之致. 必須大著心胸, 高著眼目, 切勿先以一說爲主. 虛心平氣, 徐觀其義趣. 就同中而知其有異, 就異中而見其有同. 分而爲二, 而不害其未嘗

사단과 칠정에는 ‘같은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으며, 리와 기 역시 생성론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不相離’의 관점도 있고, 가치론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不相雜’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사단칠정론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사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위 발언을 조금 각색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도덕적 행위를 권장하기 위해 선과 악이라는 가치론적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구분해 볼 것을 주장하는데, 당신은 이러한 나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생성론적 관점에 서서 사단과 칠정을 동질적인 감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퇴계는 기대승처럼 사단칠정을 리기불상리의 관점, 생성론적 관점, 같음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인욕을 천리로 오인하는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⁴⁹⁾고 경고한다. 기대승의 관점에 이론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인 사단과 칠정을 논하는 데 그러한 관점이 적합한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대승은 계속해서 ‘理氣不相離’의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반론을 펼치자, 퇴계는 기대승의 반론 가운데 리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만 수용하여 <퇴계 2서>에서 “四則理發而氣隨，七則氣發而理乘。”이라고 수정한다.⁵⁰⁾ ‘理之發’에 기를 더하여 ‘理發而氣隨’로 수정하였고, ‘氣之發’에 리를 더하여 ‘氣發而理乘’으로 수정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퇴계가 사단칠정을 논하는데 생성론적 관점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리와 기를 분리한 표현이 자칫 오해를 낳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계는 여전히 가치론적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구분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단은 비록 ‘리발이기수’

離，合而爲一，而實歸於不相雜。乃爲周悉而無偏也。”

49) <퇴계 1서>, “墮於認人欲作天理之患矣.”

50) 1568년 12월에 작성된 <심통성정도> 하도의 “如四端之情，理發而氣隨之，自純善無惡。必理發未遂而掙於氣然後流爲不善。七者之情，氣發而理乘之，亦無有不善。若氣發不中而滅其理則放而爲惡也.”라는 구절 역시 <퇴계 2서>의 표현과 다르지 않다.

이지만 ‘주리’[主理, 또는 所從來가 理]이기 때문에 순수 선한 반면, 칠정은 ‘기발이리승’이지만 ‘주기’[主氣, 또는 所從來가 氣]이기 때문에 본래 선하더라도 악으로 흐르기 쉽다고 보았던 것이다.⁵¹⁾ <퇴계 2서> 이후 퇴계는 기대승으로부터 <고봉 반론3>을 받는다. 그런데 기대승은 여전히 같은의 관점, 즉 생성론적 관점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퇴계는 논쟁이 공전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애써 작성한 <퇴계 3서>를 보내는 대신 논쟁을 그만두자는 편지를 보낸다. 그 이후 4년이 흐른 뒤, 기대승은 사단칠정논쟁을 마무리하자고 퇴계에게 <사단칠정후설>과 <사단칠정총론>을 보낸다. 기대승은 <사단칠정후설>에서 자신의 최종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칠정이 발현되어 절도에 맞는 것은 애당초 사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칠정’이 비록 기에 소속된다고 하더라도 리가 진실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발현되어 ‘절도에 맞는 것’[中節]은 곧 하늘이 부여해준 성의 본연의 실체이니, 어찌 그것을 ‘기가 발현된 것’으로 보아 ‘사단’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⁵²⁾

기대승은 여전히 처음부터 견지해온 ‘사단과 칠정은 이질적인 감정이 아니다’⁵³⁾는 입장을 고수한다. 칠정 가운데 중절한 것은 선한 감정이기 때문에 사단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며, 사단이 칠정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결코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대승은 끝까지 생성론적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론적 관점에서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51) “‘理發而氣隨之’라는 말은 ‘주리’적 관점에 말한 것일 뿐, 리가 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그것입니다. ‘氣發而理乘之’라는 말은 ‘주기’적 관점에서 말한 것일 뿐, 기가 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칠정이 그것입니다.”[大抵有理發而氣隨之者, 則可主理而言耳, 非謂理外於氣。四端是也。有氣發而理乘之者, 則可主氣而言耳, 非謂氣外於理。七情是也。]

52) <四端七情後說>, 七情之發而中節者, 則與四端初不異也。蓋七情雖屬於氣, 而理固自在其中。其發而中節者乃天命之性本然之體, 則豈可謂是氣之發而異於四端耶?

53) <四端七情總論>, “발현되어 절도에 맞는 것은 리에서 발현하여 언제나 선한 것이니 사단과 더불어 처음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구분하고자 했던 퇴계와 충돌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퇴계는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내가 제시했던 ‘성현의 회로애락에 대한 것’과 ‘[사단과 칠정에] 각각 所從來이 있다’ 등의 이론에 대해 그대가 논한 부분에는 과연 미심쩍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서 재삼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전에 그대가 보내준 인심도심설도 모두 다양한 측면에서 곱씹어 보고 가르침을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⁵⁴⁾

퇴계는 ‘성현의 회로애락에 대한 것’과 ‘사단과 칠정에 각각 근원이 있다’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기대승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퇴계는 성현의 회로애락은 그것이 비록 증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칠정에 속하는 이상 ‘氣發’에 해당되므로 사단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견해를 시종 펼치고 있다. 그래서 기대승에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퇴계가 1566년 11월 사단칠정논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사단과 칠정을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보는 입장’과 ‘사단을 主理적 관점에서 논하고 칠정을 主氣적 관점에서 논하는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원재는 <퇴계 4서>를 근거로 퇴계는 “칠정의 기원을 사단과 다른 것으로 상정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했다.”⁵⁵⁾고 주장한다. 정원재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위 인용문을 논자와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정원재는 위 구절을 ‘기대승이 논했던 퇴계의 주장에 문제가 있으니 퇴계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퇴계가 기존의 자기 주장을 재고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정원재처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위 편지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해

54) <퇴계 4서>, “所論鄙說中聖賢之喜怒哀樂及各有所從來等說, 果似有未安, 敢不三復致思於其間乎?”

55) 정원재, 앞의 논문, 48쪽.

석은 약 10일 후 작성된 <퇴계 5서>의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에 나누어 소속시킬 수 있다’⁵⁶⁾라는 주장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퇴계 4서>에서 ‘중절환 칠정과 사단이 다르다는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해놓고, 곧이어 <퇴계 5서>에서 ‘사단과 칠정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퇴계 4서>를 <퇴계 5서>와 함께 살펴본다면, 퇴계는 <퇴계 4서>에서 자신의 기존 주장에 대한 기대승의 비판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기대승에게 재고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사단칠정논쟁이 끝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1566년 12월 퇴계는 “사단이 칠정 안에 있다.”는 발언을 한다. “천하에 리 없는 기도 없고, 기 없는 리도 없다. 사단은 ‘理發而氣隨之’이고, 칠정은 ‘氣發而理乘之’이다. … 혼륜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칠정의 未發인 中은 大本이 되고 칠정은 大用이 되는데, 사단이 그 안에 있다.”⁵⁷⁾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중절환 칠정과 사단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단을 칠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던 퇴계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일까? 정말 퇴계는 사단이 칠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던 것일까? 위 발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자.

『중용』에 따르면 칠정이 발현되기 전에는 [천명의 성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中으로 대본이 되며 발현된 칠정은 대용인데, 그 가운데 중절환 것은 선한 감정이 된다. 여기서 선한 감정인 중절환 칠정은 사단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대승이 줄곧 주장했던 ‘중절환 칠정은 사단과 다르지 않다’, ‘성인의 희로애락은 사단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과 동일하다.

그런데 “사단이 칠정 안에 있다.”라는 발언 앞에는 단서 조항이 붙어

56) <퇴계 5서>, “四七必不可分屬理氣, 所謂未異也.”라는 발언은 결국 자신은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에 나누어 소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7) 『退溪先生文集』卷36, <答李宏仲問目>, “天下無無理之氣, 無無氣之理.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 若渾淪言之, 則以未發之中, 爲大本, 以七情爲大用, 而四端在其中.”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단서 조항은 바로 ‘혼륜의 관점에서 말한다면’이다. 이 말은 ‘혼륜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 즉 분개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발언은 퇴계가 사단칠정을 논할 때 시종 견지해왔던 ‘분개의 관점’이 아니라, 기대승이 주장했던 혼륜의 관점에서 보면 사단이 칠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569년 제자 이함형에게 보낸 편지(<答李平叔>)에서도 위와 유사한 발언이 발견된다. 퇴계는 “칠정의 경우에는 비록 ‘發於氣’에 해당되지만 실상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명칭이지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악기>, 『중용』, <호학론>에서 사단을 칠정 속에 포함시켰으니 혼륜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다.”⁵⁸⁾라고 한다. 이 발언은 ‘혼륜의 관점에서 보면’ 칠정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명칭에 해당되며, 그 가운데 中節한 것은 사단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칠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퇴계가 이덕홍에게 했던 “사단이 그(즉, 칠정) 안에 있다.”는 발언과 이함형에게 했던 “사단을 칠정에 포함시켰다.”는 발언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두 발언 모두 퇴계가 <퇴계 1서> 이후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주장이다.⁵⁹⁾ 따라서 1566년 <답이평중문목>, 1569년 <답이평숙> 등에 나오는 ‘사단은 칠정에 포함된다’식의 발언을 근거로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58) 『退溪先生文集』卷37, <答李平叔>, “七情, 則雖云發於氣, 然實是公然平立之名, 非落在一邊底. 故如樂記中庸好學論中, 皆包四端在其中, 渾淪而爲說.”

59) 퇴계는 <퇴계 1서> 이후, 이론적으로 두 관점에서 사단칠정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퇴계 1서>, “就同中而知其有異, 就異中而見其有同. 分而爲二, 而不害其未嘗離, 合而爲一, 而實歸於不相雜.”; <퇴계 2서>, “皆所謂渾淪言之者. 以是攻分別言之者, 不患無其說矣. … 蓋渾淪而言, 則七情兼理氣, 不待多言而明矣. 若以七情對四端, 而各以其分言之, 七情之於氣, 猶四端之於理也.”; <퇴계 2서>, “分開說處, 作分開看, 而不害有渾淪, 渾淪說處, 作渾淪看, 而不害有分開.”; <퇴계 3서>, “既曰渾淪言之, 安有主理主氣之分. 由對舉分別言時, 有此分耳.”

V. 나오는 말

이상에서 보았듯이 사단칠정과 관련된 논의에는 두 가지 관점, 즉 ‘分開觀-다름의 관점-理氣不相雜의 관점-가치론적 관점’과 ‘渾淪觀-같음의 관점-理氣不相離의 관점-생성론적 관점’이 있다. 그 가운데 퇴계는 인간의 감정을 다룬 이론인 사단칠정론의 경우 ‘혼란의 관점’보다 ‘분개의 관점’, ‘생성론적 관점’보다 ‘가치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명구도>에서 사단을 ‘순수 선한 감정’으로 보고 칠정을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으로 본 후, 양자를 질적으로 다른 감정으로 구분하여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고 했던 것이다. 확장의 대상인 사단과 절제 및 통제의 대상인 칠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만 人欲과 天理를 혼동하지 않고 ‘存天理, 去人欲’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퇴계의 기본적 입장은 ‘천리와 인욕의 대립 구도’를 마음의 영역에서는 ‘도심과 인심의 대립 구도’로 연결하고, 감정의 영역에서는 ‘사단과 칠정의 대립 구도’로 연결한 것이었다.⁶⁰⁾ 그러므로 퇴계 사단칠정론의 기본 입장은 순수 선한 감정인 사단과 악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인 칠정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퇴계가 ‘혼란관’, 즉 ‘생성론적 관점’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퇴계 역시 생성론적 관점에서 논하면, ‘중절환 칠정과 사단은 다르지 않다’, ‘사단은 칠정에 포함된다’, ‘인심도심을 사단칠정에 짝 지울 수 없다’ 등과 같은 주장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퇴계는 생성론적 관점을 사단

60) 퇴계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당시 조선사회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사단칠정론은 송대 성리학에서는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단, 설선 등이 중심이 된 명대 성리학의 실천적 경향이 조선으로 전해지면서 풍부하게 연구되었다. 명대 성리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조선 초기 성리학자 권근은 『입학도설』 중 <천인심정합일지도>에서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분대하여 설명하였고(사단을 理之源으로, 칠정을 氣之源으로 나눈 후 전자를 순선무악한 감정으로 후자를 가선가악한 감정으로 보았다), 유송조 역시 권근과 마찬가지로 『성리연원촬요』에서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분대하여(“理發爲四端, 氣發爲七情.”, “四端者理之發, 七情者氣之發.” 등의 표현이 보임) 이해 하였다.

칠정론의 기본 입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론적 입장에서 논한 앞선 발언에는 대개 단서 조항이 붙어 있거나, 특수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만약 퇴계가 초기에는 분개관(즉 가치론적 관점)을 더 적절한 관점으로 보았다가 후기로 가면서 혼란관(즉 생성론적 관점)을 더 적절한 관점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분명 퇴계의 사단칠정론은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혼란관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퇴계가 혼란관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단칠정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분개관을 더 유효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퇴계의 사단칠정론이 본질적 측면에서 변화되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퇴계는 끝까지 ‘사단과 칠정은 서로 이질적인 감정이다’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퇴계는 1566년 <퇴계 4서>에서 기대승이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에 나누어 소속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수용해준 것⁶¹⁾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1566년 12월 이덕홍의 물음에 “정이 발현되는데 기가 주관하기도 하고 리가 주관하기도 하는데, 기가 발한 것이 칠정이고 리가 발한 것이 사단이다.”⁶²⁾라고 했으며, 1569년 <심통성정도>를 선조에게 강의하면서 “本然之性是 理를 주로 해서 말한 것이고, 氣質之性是 리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 감정의 차원에서 말하면, 리를 따라 발현되어 나온 것이 사단이고 리와 기를 합하여 발현되어 나온 것이 칠정이다.”라고 하여 사단과 칠정을 이질적인 감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1570년 이함형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心學의 단서는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요점을 총괄하여 말하면 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하는 두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1570년 이양중에 보낸 편지에서도 여전히 사단은 악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순수 선한 감정인 반면, 칠정은 그것이 중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가 개입

61) 기대승은 <四端七情後說>에서 “四端七情之分屬理氣，自不須疑。”라고 말했다.

62) 『退溪先生文集』卷36, <答李宏仲問目>, “情之發，或主於氣或主於理。氣之發七情是也。理之發四端是也。”

된 것이기 때문에 사단처럼 순수 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⁶³⁾

이상의 발언으로 볼 때, 퇴계는 시종 사단과 칠정을 선악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보아 양자를 철저히 구분해 보고자 했다는 알 수 있다. 따라서 혼란관에 근거해서 말한 ‘중절한 칠정은 사단과 다르지 않다’, ‘칠정은 사단과 질적으로 다른 감정이 아니다’, ‘인심과 칠정은 짝 지을 수 없다’ 등을 근거로 퇴계가 후기에 자신의 사단칠정론을 수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3년 08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8월 31일부터 09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9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63) 『退溪先生文集』 卷39, <答李公浩(養中庚午)>에서 퇴계는 생성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단의 부중절에 대해 말할 수 있겠지만, 맹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단의 부중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악도 겸해야 사단에 대한 설명이 온전하다는 주장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四端既發, 固不免於或失其正。然孟子只就其發見正當處言之, 今不可以流於不善者, 雜而爲說。或說必以惡亦不可不謂之性爲比而云云。然則與彼非同例也。又以純善無惡爲偏言, 兼以流於不正者爲專言, 此說亦甚謬。] 반면 칠정에 대해서는 중절 여부를 떠나 기가 이미 작용하였기 때문에 순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한다.[湛一, 氣之本, 當此時, 未可謂之惡。然氣何能純善。惟是氣未用事時, 理爲主, 故純善耳。] 퇴계는 여전히 순선의 사단과 선악 공존의 칠정을 구분하고 있다.

참고문헌

『禮記』, 『中庸』, 『退溪先生文集』, 『高峯全書』

김상현, 「'천명도'와 '천명도설'의 판본문제에 대한 재검토」, 『대동철학』 86, 대동
철학회, 2019, 73쪽~107쪽.

안영상, 「퇴계 만년정론을 중심으로 본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논쟁」, 『국학연구』
15, 한국국학진흥원, 2009, 369~401쪽.

이상호, 「논쟁 전·후기 退溪 四七論 변이 양상과 退溪學派 四七論 전개」, 『퇴계학
논집』 8,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1쪽~34쪽.

정원재, 「이황의 7정 이해」, 『퇴계학보』 137, 퇴계학연구원, 2015, 5쪽~69쪽.

Abstrac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oegye's theory of Four-Seven

Kim, Sang-h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the essence of Toegye's theory of Four-Seven is by examining whether Toegye's theory of Four-Seven has been revised over 18 years or whether the initial position has remained the same until lat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will first analyze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process of changing Toegye's theory of Four-Seven. After the review of the preceding study is completed, the validity of the preceding study will be verified based on Toegye's remarks that have been conducted for 18 years. Through this work, we will reveal what the essence of Toegye's theory of Four-Seven is by identifying whether Toegye's theory has changed and, if so, how far the change is.

keywords :

Toegye, Gidaeseung, Sadan(四端), Chiljeong(七情), theory of Four-Seven

